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상징적 자연이미지를 통한 심상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박 지 혜

상징적 자연이미지를 통한 심상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박 지 혜

인 준 서

박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에서는 자연에서 오는 감성을 표현함에 있어 소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와 표현 방식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본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써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예술이라는 세계를 탄생시켰다. 인간이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생명력에 대한 감동을 느끼며 예술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성은 본인 작품의 형성 배경이 된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문명은 집단을 형성하여 인간에게 사회적 동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사회 적응에 더욱 치중하여 관계 맺음을 한다. 본인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음에서 오는 감정들을 의미화 한다. 인간은 즐거움, 행복, 사랑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에서 오는 배신, 분노, 슬픔 등을 겪는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소재에 이입되고 그림 속 소재들은 각각의 상징성을 가지고 본인의 내면을 이야기한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감정적 치유를 받는 본인은 작품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화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연에서 나온 한지 위에 드라이포인트 기법을 사용하여 찍은 것 위에 손으로 펜이나 연필로 직접 그린다. 뜯거나 파서 질감을 살린 종이 판으로 찍어 한 겹 한 겹 옷을 입히듯 중첩된 느낌을 살린다. 선으로써 운동감 있는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선을 긋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다. 여백 속 반복된 표현은 리듬감을 주고 조형구도를 갖는다. 파스텔 톤의 따뜻한 색으로 서정적인 느낌을 주어 자연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전개과정에 있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과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사회집

단에서 오는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연을 느끼고 그리는 행위로서 치유가 된다고 보며 이러한 감정의 전달을 위한 조형적 표현 방법과 기법을 살펴보았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자연과 인간	
1) 자연과 예술.....	3
2)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내면.....	5
3) 민화를 통해 본 자연 이미지의 상징성.....	7
2. 조형적 요소	
1) 비우는 공간과 채우는 공간.....	10
2) 색채.....	12
3) 반복의 선.....	13
4) 장지.....	15
5) 판 법과 그리기.....	16
3. 작품 설명.....	18
III. 결론.....	41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내가 기꺼이 너를, 70x50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18
【작품2】 봄바람 때문에 훑날리는 거야, 60x148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21
【작품3】 비 오는 고요한 그 곳, 107x60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24
【작품4】 뜻하지 않은 경주, 73x103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27
【작품5】 그리워, 잊어줘, 49x136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29
【작품6】 뭘 보니-나, 73x82cm, 장지 위 혼합재료, 2010.....	31
【작품7】 뭘 보니-너, 73x82cm, 장지 위 혼합재료, 2010.....	31
【작품8】 그득한 고독, 209.5x145cm, 장지 위 혼합재료, 2010.....	34
【작품9】 풍풍 평평, 87x63cm, 장지 위 혼합재료, 액자 오브제, 2009....	36
【작품10】 가시도친, 50x35cm, 드라이포인트, 친플레, 2007.....	38
【작품11】 일초라도 고민했니, 50x35cm, 드라이포인트, 색연필, 2007....	38
【작품12】 난 어린앤가봐, 50x35cm, 드라이포인트, 색연필, 2007.....	38

도판 목차

- [도판1] 야오이 쿠사마, INFINITY-NETS(TBBBTY), 194x194cm,
캔버스에 아크릴, 2008
- [도판2] 야오이 쿠사마, INFINITY-NETS(ABCETO), 145.4x145.4cm,
캔버스에 아크릴, 2008
- [도판 3] 귀스타브 쿠르베, 오르낭의 매장, 311.5 x 668 cm, 캔버스에 유채,
1849~1850
- [도판 4] 김홍주, 무제, 26.5x20x11cm, 거울 테 패널에 유채, 1970

I. 서론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문명은 도시화, 획일화를 가져왔고 이는 가족 집단에서 학교, 사회라는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였다. 집단 속에서 인간들은 사회의 질서, 도덕적 규범이라는 통제 속에서 대립과 갈등, 혼란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의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대사회 속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본인은 자연이 주는 치유능력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이는 그림을 그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본인에게 자연은 감성의 근원으로, 자연의 생명력은 삶에 대한 원초적 욕구를 느끼게 해준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의 모태이며 영원한 존재 가치로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에게 영감을 주고 예술로 재창조된다. 본인 또한 자연에서 느껴지는 서정적인 심상을 작품에 반영한다.

논문 첫 번째 장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이 본인에게 어떠한 심상을 주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현대사회에서 관계 맺음으로 오는 내면의 갈등상황의 원인과 자연에게 받는 치유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의 요소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그림에 전개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두 번째 장에서는 종이 판이 주는 질감과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백이 갖는 집중력에 대하여 서술하며, 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느끼는 유희와 반복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조형적인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본인 자신에 대하여, 본인과 관계 맺는 여러 주변인물들과 느끼는 감정상태를 자연물에 그 의미를 내포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에서 느끼는 서정적인 감정과 자연물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동기와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조형적

인 측면을 검토하였다.

지극히 개인적인 심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를 사회적 차원으로 찾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심리에 대해 알고 그 때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상황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자연과 인간

인간이 경험하는 괴로움, 고통, 동정, 슬픔, 외로움 등의 감정을 자연의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여 나-너, 또는 우리들의 상호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연과 예술

자연(自然)이란 용어의 근원지를 살펴보면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비롯된 단어이며 서양에서는 “nature”, 그리스에서는 피시스(physis)라 하였다. 이 모든 단어들의 뜻은 나와서 자라고 소멸하는, 생명력을 바탕으로 그 자체가 힘을 생성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테크네(techne)는 인간의 능력과 제작지식을 가리키는 말로, 이는 오늘날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과 관련될 뿐 아니라 기예/예술의 영역에 포함된다.¹⁾

‘자연’이라는 말은 그와 반대되는 자연과 기술, 자연과 문화로 표현되어 왔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며 재생하는 반면, 그 반대의 개념들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주안점을 이룬다. 일반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그 안의 모든 생명체와 만유의 온 누리를 자연이라 한다.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 공기, 흙, 물과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존재로서, 예술을 위하여 소재를 제공해 주고

¹⁾ 미학대계 간행호1,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421.

인간은 자연이 주는 신비로운 순환의 질서에 무한한 감동을 받는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미적 심상은 예술로 표현되고 예술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예술가라면 누구나 자연에서, 또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통한 체험에 대하여 각각의 느낌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그대로를 묘사하기보다 화가 자신이 지닌 감정, 감각에 형태를 부여하고 내면의 상상력을 동요시켜 모방에 그치지 않고 자연을 재창조 하였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자체는 예술이 될 수 없으며 예술가의 감정이 이입되어 표현될 때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내적 심상을 회화로 표현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동양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의 수련을 위해 자연을 관조(觀照)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고, 서양의 예술가들은 자연을 모방의 소재로 여기며 자연이 갖는 아름다움을 재현하였다.

본인에게 자연은 감성의 근원으로써 어머니의 품같이 넓고 따뜻하여 마음의 안식을 준다. 산과 바람, 바다의 물결침, 작게는 들꽃, 보도 불럭 사이에 비집고 나오는 잡풀의 생명력을 오감으로 느낀다. 이처럼 본인에게는 자연의 생명력은 삶에 대한 원초적 욕구이다

언제나 사물을 자유롭게 보고, 본 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본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닌 본인의 감성을 거친 또 다른 새로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을 통해 보고 느낀 감정을 드러내는 심적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관계 또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연은 관찰하는 사람마다 의식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며, 예술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거침으로써는 또 하나의 창조된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재창조는 곧 자아의 욕구표출이며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2)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내면

6년을 매일 같이 다니는 이 길..그러니 매일 같이 바라보고 느낀다. 거의 없는 지상 역이자 북한산이 그림같이 보이는 지축 역.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어찌 저런 곳에서 살까..... 생각하게 하는 작은 집들이 빼곡히 붙어있다. 빨강, 노랑, 파랑 색색 가지 지붕들이 참 귀엽기도 하다. 그 뒤로는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북한산이 펼쳐져 있다. 저 곳이 명당이라 말하는 배산임수가 아닐까..... 비록 네모진 박스 안에 목적지가 제 각각인 사람들을 싣고 줄줄이 이어져 달리는 지하철 속이지만 잠시 바쁜 생활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 여름엔 푸른 옷을 입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산을 이루고, 겨울철엔 산등성이에 줄줄이 늘어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쓸쓸한 마음을 더한다.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먹으로 물들인 한지를 겹겹이 쌓아놓은 듯 한, 한 폭의 수묵화를 연출하기도 한다. 지금은 옹기종기 늘어 선 지붕들이 다 헐리고 신도시가 들어섰다. 지하철 속 아저씨, 아줌마들은 서울과 경기도의 중간에 끼인 시골마을에 저렇게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니 탐욕이 깃든 두 눈을 반짝이며 몸을 유리창 쪽에 바짝 기울여 쳐다본다. 나는 그 아파트들이 왠지 조용한 마을에 침입자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내 마음에 위안을 주었던 북한산도 가려 잘 보이지 않고 다다다닥 붙은 지붕에서 저녁때면 연기가 피어 오르던 그 여유로움을 이젠 볼 수 없다. 어느 순간 지붕들이 없어지고 허허벌판이 된 그 곳을 보면서 1시간 동안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잠시의 햇살만큼이나 행복 충만함을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젠 잃어버렸다.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 추억으로 그 풍경들을 마음에 그린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도입되고, 낡은 것은 사라진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인간은 자연과 부조화를 야기시켰다. 도시를 형성하고 인구가 늘면서 더 많은 식량을 원했다. 더 넓은 농토를 마련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인위적인 토지개발을 할수록 척박한 토지로 변해갔다. 이렇게 도시화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했지만 자연과의 조화를 깨뜨렸다.

이에 따라 도시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보다 사회의 조건과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동기를 포기하거나 확신을 잃어 공허한 상태가 된다. 이와 맞물려 인간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대립과 갈등, 혼란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는 다변화한다. 사회의 요구에 따라 삶의 자유와 개성보다 자신을 사회에 맞춰 변화시켜야 하는 현대인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자연과 단절되어 온갖 오염과 공해, 소음들에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도시에서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타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급변하는 문명 속에서 개개인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 졌으며 자신의 능력을 조직에 소속되어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적응이라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시대나 문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요구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외적, 내적 어려움을 겪는다. 본인은 관계 맺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 심리 중에서 '방어 기제'라는 요소에 대해 말하려 한다.

방어 기제는 현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피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얻게 되는 부적합한 감정 등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다.²⁾

본인은 가족, 학교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또는 다른 사회 집단과의 만남, 개인적인 나-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의 내면을 알고자 하였다. 타인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 기쁨, 즐거움, 행복, 사랑도 느꼈지만 어떠한 갈등 상황들로 인해 배신,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는 선인장으로써 드러낸다.

현대의 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정신적 나약함을 인간의 본거지인 자연에서 치유하라고 한다. 인간의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²⁾ 정진선, 문미란 지음, 「인간관계의 심리-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2008, pp.158~169.

살기 위해서는 자연에 의존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를 들면 숲이 직장인들의 직무만족도와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지, 어린아이들의 지적 호기심과 집중력을 증가시킨다는지, 수술 후 또는 정신병 환자들의 회복률을 높인다는지 하는 연구결과³⁾ 를 보면 알 수 있다.

본인은 현대사회의 편리함과 사회적 동물로써의 인간을 부정하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연은 본인의 잊어버렸던 감성을 자극하고, 자연의 존재가 본인에게 주는 심상과 치유력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현대에 삶을 사는 본인의 일상에 자연의 요소들은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워 주며 내면의 갈등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 준다. 삶에 대한 욕구는 자연의 형태로 드러나며 암시적 존재의 상징으로 나타낸다. 자연을 느끼는 감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경험인 시각적 경험으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변형 또는 단순화시키고 어떠한 상징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3) 민화를 통해 본 자연 이미지의 상징성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 기호, 물건 따위”이며,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또는 사물”⁴⁾ 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되어 있다.

상징성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그림은 민화이다. 민화는 한국인의 마음과 믿음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며 실용성이 강한 그림이다. 애써 꾸미려고 하지 않고 표현이 직선적이다. 민화 애호가인 김호연은 “우리의 민화는 우리겨레의 생활철학과 생활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생활미술이므로 ‘겨레그림(민

³⁾ 신원섭, 「치유의 숲」, 지성사, 2005, pp.23~28.

⁴⁾ 국립언어연구원, 「표준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2000.

죽회화)’⁵⁾이라 부르며 민화를 우리 겨레의 미의식과 정서를 가 표현한 옛 그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희구하는 수(壽), 복(福), 강(康), 녕(寧), 부(富), 귀(貴), 다자(多子), 벽사(僻邪), 도덕(道德), 락(樂), 입신출세(立身出世)등 현세적인 모든 소망이 그림 안에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민화로 불리우는 그림들은 소재의 상징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민중의 염원이나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이상세계를 담고 있다.

민화에서는 ‘꽃’은 기복(祈福), 벽사(僻邪)의 관념성과 관련 지어 등장한다. 꽃의 형태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염원을 담았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이 합일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화의 꽃은 꽃 자체보다 경사만 생기며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을 바라는 마음과 대자연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인의 작품 곳곳에서 꽃이 등장한다. 【작품1】의 국화꽃에 내포된 의미는 죽음에 대한 현화이다. 국화는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 고고하게 피어난다. 전통회화에서는 안락과 군자의 충성을 상징하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였다. 민화에서는 국화를 불로장수(不老長壽)의 상징으로 쓰인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의식에 있어서도 현화는 숭고한 행위이며, 특히 불교에서는 부처에게 바치는 여섯 가지 공양물(꽃, 향, 초, 탕, 과일, 차)중 첫 번째가 꽃 공양이라고 한다.⁶⁾

또한 【작품4】에서는 부츠를 신은 선인장들이 향해 달려가는 그 곳에 연꽃이 있다. 연꽃은 생명의 창조, 번영, 청정, 고고함을 상징하며 불교의 꽃이지만, 민간이나 유교 등에서도 널리 쓰였다. 불교에서는 연꽃이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 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극락세계로도 여겼다. 유교에서는 연꽃을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에 비유하였고, 도교에서

⁵⁾ 김영학, 「민화」, 대원사, 1994, p. 42.

⁶⁾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8, pp.76~77.

는 신선이 가지고 다니는 신령스러운 꽃이라고 하였다.⁷⁾ 작품 속 연꽃은 위의 불교적인 의미를 함께하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는 그 무엇을 상징한다.

이처럼 옛 선조들이 소재에 소망과 염원을 담아 표현했던 민화에서나, 종교적인 상징물처럼 본인도 꽃이라는 자연적 소재에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민화의 소재의 상징성은 화자에 의해 많은 이야기들을 지어낼 수 있게 한다. 본인도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읽어 풀이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성을 차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인장은 자체조직 내에 수분이 많아 사막의 초식동물에게 표적이 되는 식물이다. 선인장의 가시들은 이 짐승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돕는 자위용 무기이다. 가시 때문에 위험해 보이고 흉측한 선인장이지만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생물학적 특징이 인간의 ‘자기방어’ 심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선인장은 연약한 속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겉으로는 흉측한 가시를 세울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한다.

소재들이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전체의 이야기를 형성하며 전체의 이야기는 인간의 감정, 나와 타인의 인간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상징성을 띤 소재들을 배치하고 그려냄으로써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감정을 해소하고 기억하여 본인의 내면세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⁷⁾ 송해석, 「민화의 동식물 특징 및 상징성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45.

2. 조형적 요소

1) 비우는 공간과 채우는 공간

일반적으로 동양화에서 표현 되어진 형상 외에 남겨진 공백(空白)부분을 여백(餘白)이라 부른다. 풀이하면 그 뜻은 ‘공간’ (空間)이나 ‘공백’ (空白)이라 하긴 하나 대체로 작가가 조형적 효과를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남긴 공간은 여백이라 칭하고, 이와 달리 조형적 의도가 충실하지 못한 상태로 남는 허(虛)한 공간은 ‘공백’이라 하며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⁸⁾

동양화는 서양화와 달리 여백의 미(美)를 중시한다. 여백은 의도적으로 남겨져 주제의 집중도를 높여주고 그림의 화면에 숨을 트여줌으로 배경이 되거나 보는 사람에게 상상의 공간이 된다.

“예술은 상상이며, 상상은 하나의 활동”⁹⁾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교수인 콜링우드(R.G.Coolingwood)는 예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상상은 의식의 확장으로써 상상의 여백을 통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이러한 상상의 공간을 줌으로 관객을 작품으로 끌어들이었을 때, 여유를 갖게 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래 여백이란 용어는 형태 위주인 서양화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동양권에서의 여백은 정신적인 의미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며, 빈 공간에서 무(無)가 아닌 유(有)의 기능을 띄고 있다.

불가와 도가 사상에서도 여백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불가사상에서는 여백을 ‘공(空)’이라 말하며 공(空) 또는 허(虛)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공허(空虛)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허공(虛空)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다른 것을 막지도, 막히지도 않고 모든 이념을 받아들이는

⁸⁾ 왕백민, 「동양화 구도론」, 강관식 역, 미진사, 1991, p.63.

⁹⁾ R.G.Coolingwood, 「Outline of Philosophy of Art」, 이인철 역, 서울: 정음사, 1974, p.32.

공간(空間)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다 하여 보이지 않는 공간이 아니며 보인다 해서 보이지 않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며 여기서 공은 정신과 물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라 말하고 있다.

도가사상에서는 여백을 무(無)와 의미를 같이한다. 유(有)와 무(無)를 유기적인 관계로 생각하여 유가 있어 무가 있고 무가 있기에 유가 있다는 무한한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불가와 도가에서의 여백의 개념은 서로 통한다 할 수 있다.

그럼 본인은 여백을 어떤 의도로 사용 하였는가?

본인 작품에서 여백은 안정감을 준다. 여유로움과 고요한 느낌을 주고 자칫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숨통을 트여 준다. 더불어 수평적인 구도를 사용, 정적인 구도로써 안정감을 더하려고 하였다.

또한 집중력을 높여줌으로써 여백으로 남겨진 부분과 대비적으로 이야기 되는 부분을 더 강조하여 관객이 집중하는 효과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비워진 공간, 여백이 아닌 반복된 이미지로 채워진 공간이다. 한지 자체의 결이 남아 있는 여백과 갈대로 수 놓아진 언덕이나 바깥 마른 나뭇가지의 반복으로 채워진 공간이 있다.

이러한 반복기법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미술사조- 옵아트, 팝아트와 미니멀 아트-속에 다양한 형상들로 나타난다. 옵아트는 반복적 리듬의 시각적 패턴들이 엇갈림의 효과로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이었다.

초현실주의 분위기의 생물 형태적 추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그물 모양의 패턴이 화면을 뒤덮는 <무한망 시리즈>에서 내면세계를 표현한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는 반복과 확산을 통해 ‘증식’해 나가는 대표 작가이다.

[도판 1,2]

이들은 반복으로 표현되는 모티브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생명력보다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는 전체로써의 패턴을 인식하려는 것이다. 본인은 옵아트와 같이 기하학적 형태는 아니지만 반복이 갖는 리듬감과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는

전체로써의 인식 된다는 점에서 본인의 그림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본인의 배경에 깔린 갈대들과 【작품3】 와 【작품4】 에 등장하는 산에 그려진 나무가 그러하다.

부분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의 형상을 반복하여 심리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삶 속에서의 순환, 일상의 반복되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백이 채워진 공간을 집중시킨다면 반복은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반복된 것으로 느껴지는 무수한 이야기들을 상상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관객들도 본인과 함께 그 느낌을 같이 느끼거나 상상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본인은 반복으로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을 한 화폭에 담음으로써 내적인 동요를 상승시키기도 하고 안정감과 상상력을 동시에 주고자 하였다.

또한 투시나 원근법 등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아카데미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소재들이 의미전달에 확실하고자 평면적으로 표현하였다.

2) 색채

그림에 있어 색은 회화의 표현 방법 중 하나로서 작품 전체화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에게 모든 사물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색채로 즐거움, 슬픔 등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요소이다.

색채는 감정을 드러내는 심리적 언어이다. 개인의 감성을 대변하고 기억 속에서 색채는 깊은 인상들과 연결되어있다. 마티스는 "색채는 단순한 묘사의 색채가 아닌 내적 표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풍경 속 색채들은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쓸쓸함과 고독을 표현하기도 한다. 색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예를 들어 【작품3】 에서 형광 빛이 도는 주황 하늘은 다소 풍경화의 배경 색으로

서는 거리가 먼 색이다. 【작품5】도 배경색이 분홍이다. “꿈이 있는 곳에는 분홍이 있다. 분홍은 싸구려 예술품의 색,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색, 비현실적인 색이다. 우울증 환자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향정신성 약제는 ‘분홍 알약’이라고도 불린다.”¹⁰⁾이처럼 기분전환의 색인 분홍색으로 배경은 밝고 명쾌하게 감으로써 그 곳이 우울하지만은 않은 꿈꾸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 오히려 우울함을 상징하는 푸른색, 무채색을 쓰지 않고 우울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홍색을 사용하였다.

반대로 지금까지 서정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맞물려 있는 작품은 【작품6】, 【작품7】이다.

색의 따뜻함과 차가움은 색상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명도에 의해서도 느껴진다. 색의 밝고 어둡기에 따라 가벼움과 무거움이, 색채에 의해 강함과 약함을 줄 수도 있다. 채도가 높고 자극적인 원색보다는 채도가 낮아 은은한 느낌과 안정감을 주는 색들로 부드러운 느낌과 서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도적으로 서양화의 명암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색채 고유의 발색력과 색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면을 단순화하고 색채 또한 간결하게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의미전달이 더욱 확실해 졌다.

3) 반복의 선

선은 회화에 있어 점, 면 색과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 칸딘스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점이 움직여 만들어낸 흔적과 소산”이라고 했다. 회화에 있어 가장 기본을 이루는 ‘점’이라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만나 선으로써 형태를

¹⁰⁾ 에바헬러, 「색의 유혹」, 문은배 감수, 이영희 역, 예담, 2002, pp.375~376.

이룬다.

본인은 '정지'의 점이 아닌 울동감이 있는 선으로써 운동감이 있는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백을 통하여 확장된 공간을 선으로 집중시켜주고 충분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단순함 속에 복잡함'을 의도했다.

또한 똑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낀다. 반복성은 리듬감을 불러일으킨다. 반복개념에 대해 칸딘스키는 '반복'이란 내적인 동요를 상승시키는 강렬한 도구이며, 동시에 단순한 리듬을 만드는 수단¹¹⁾이라고 하였다. 칸딘스키의 예술론에서는 동일한 리듬의 단순한 리듬, 균일한 증가의 간격의 반복, 동일함이 없는 반복으로 구분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늘어놓은 요소들, 어떤 흐름을 가진 선, 형태, 색채, 방향이 리듬을 생산한다. 반복으로 전달되는 것이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예는 같은 모양의 발을 여러 번 반복하여 그림으로써 산으로 점점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는 '금강산도'에서도 볼 수 있으며 반복적 리듬감은 보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그렸던 화가 역시 느꼈을 것이다.¹²⁾

산 능선의 리듬감은 그 산 능선을 이루는 나뭇가지들이 모여 만든다. 한 그루도 같지 않을 나무들이 수천, 수만 그루가 모여 한 덩어리의 산을 만들어 내 듯, 그림 속에서도 선으로 만들어낸 개별적 요소들이 울동적인 형태감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반복은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화면 속에서 선으로써 조형 구도를 갖기도 한다.

¹¹⁾ 칸딘스키,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차봉희 역, 열화당, 1997, p. 30.

¹²⁾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8, p. 43.

4) 장지

한지는 동양화의 용구(用具)중에서도 종이, 먹, 붓, 베틀을 문방사우(文房四友)로 불리어 왔다. 옛 부터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선조들의 생활문화 속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어 왔다. 섬유 사이에 적당한 공간으로 공기를 흘러 보내어 채광성이 뛰어나고, 통풍과 습도조절도 잘 되며, 햇빛을 투과시키는 특성을 이용, 공기정화, 가시광선 차단, 습도조절과 탈취효과까지 있어 우리 선조들은 한지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였다.

한지는 부드러우면서 물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여 소량의 습기에도 민감하다. 이러한 특징은 한지가 가지고 있는 섬유질 사이로 먹물이나 안료가 스며드는 '선염(渲染)현상' 때문이다. 선염법은 화면에 물을 칠하여 마르기 전에 붓을 대어 몽롱하고 침중한 묘미를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 선염은 우연성이라는 특징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한지의 천연 섬유질이 빨아들인 수분은 절대 인위적으로 꾸밀 수 없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고 미묘하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정지'상태의 평면이 아닌 울동감이 있는 공간감을 갖게 한다.

장지에 전체적인 배경으로 위에서 언급한 선염법을 이용하여 한정된 화면에 공기의 흐름을 붙여넣고 약간의 얼룩을 의도 하였다. 내가 쓴 종이는 한지 중에서도 두꺼운 종이를 두,세 겹 덧 붙인 장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장지는 화선지에 비해 흡수력도 붓의 흔적도 덜 심한 편이고, 다소 겹쳐 그릴 수도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지에는 반수(槃水)를 칠한 것과 칠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반수를 칠하지 않은 것을 생지(生紙) 또는 복사지(複寫紙)라고 하며 먹물이 잘 스며들고, 반수를 칠한 화지를 숙지 쪼는 반수지라고 한다. 반수지는 먹물이 스며들지 않으므로 발묵하여 그리기는 어려우나, 중첩하여 색을 올리다 보면 두꺼운 종이가 주는 투박한 질감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¹³⁾

¹³⁾ 김수연, 「풍경의 서정성 추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22.

본인은 반수를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종이 위에 물을 많이 탄 물감으로 전체를 칠한다. 젖었을 때보다 말랐을 때가 색이 연해지는 것을 보며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하였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채색하여 번짐과 겹침을 드러내어 풍경 전체에 바람이 불 듯 생동감과 따뜻함을 주려고 하였다.

5) 판 법과 그리기

작품에서 밑 배경, 밀도를 주어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가을이나 겨울의 계절에서 느껴지는 스산함을 표현 하고자 드라이포인트(drypoint) 기법으로 PVC판 위에 옷을 재단할 때 쓰는 롤렛과 니들을 이용하여 자국을 남겨 찍는다. 드라이포인트를 찍어낸 효과는 에칭(etching)과 비슷한데, 가장 가치가 있는 판화는 거스러미의 효과를 보여주는 판화이다. 이러한 판화를 "거스러미로 가득 찬 판화"라 부른다.¹⁴⁾ 이러한 거스러미 효과는 깔끔하게 정리된 이미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들풀들의 가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물을 들인 장지에 드라이포인트를 이용하여 한 도를 올리고 갈대나 풀 등을 펜이나 연필과 같은 도구로 드로잉을 한다.

손에 펜이나 연필을 잡고 펜, 연필이 종지와 마찰을 일으키는 진동을 느끼며 하나하나 그려나간다. 갈대가 바람결에 스치듯, 나무를 심듯 판화의 간접 성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다. 직접과 간접이 조형적으로 어우러짐을 생각하며 두 가지의 효과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린 것 위에 선인장이나 구름과 같은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찍는다. 이러한 쌓는 방법으로 한 겹, 한 겹 옷을 입히듯 그리고 찍는다.

선인장은 종이 판을 쓴다. 종이 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판, 석판, 실크 판

¹⁴⁾ 서치방 편집부, 「판화미술의 세계」, 서치방, 1994, p.106.

법은 제판 과정에서 화학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동판 같은 경우 부식의 과정을 거치면 의도하는 선인장의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큰 작품의 경우 개체 별로 판을 따로 만들어 찍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판을 자를 수 있어야 하는데 판을 손 쉽게 잘라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크의 경우 평면적이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자르기도 쉽고 종이의 결을 따라 찢어냈을 때의 효과가 선인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종이 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자연에서 나온 종이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의 생명력을 가진 식물을 표현함에 있어 주제와도 맞아 떨어진다. 종이의 표면은 자연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종이의 찢어짐 사이에 머금은 잉크의 양이 찍혔을 때 촉각적으로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림을 원하였기 때문에 어느 겹도 튀어 보이지 않게 은은한 중첩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3. 작품 설명



【작품1】 내가 기꺼이 너를, 70x50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작품1】 내가 기꺼이 너를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익숙지 않다. 중학교 때, 그 친구는 책을 한 번 후루룩 보고는 전교 일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 치과의사가 된 그 친구를 나는 무엇이든 척척 잘 해내는 무적의 여자 태권 브이쯤으로 기억한다. 어느 날 그녀의 아빠가 하늘로 떠나셨다는 선생님의 그 묵직한 목소리를 듣고 학교엘 나오지 않은 태권 브이의 친구들 훈이, 철이, 영희가 모여 처음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 아무도 선뜻 입을 떼지 못했던 것이 생각난다. 며칠 뒤,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역시 그녀에겐 슬픔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 그녀 앞에서 나 혼자 철딱서니 없게 끼이 끼이 숨이 넘어가도록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기억이다.

막 여름이 지나 겉옷을 걸쳐야 했던 스산한 밤. 그의 콘크리트 마냥 무거운 입을 원망했다. 거의 한 달을 하루하루 조글아 드는 마음을 안고 신촌의 병원을 들락거렸을 그의 마음을 나는 까마득히 몰랐다. 당신의 모습이 창피해 다 낮고 보자고 하시며 미래를 기약하였지만 머지않아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메아리가 되었다.

작품 속엔 갈대 언덕이 겹겹이 솟아나 있다. 여기서 갈대는 외로움을 상징한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연상하였다. 하늘에는 하얀 국화 구름이 떠 있는데 국화 구름에서는 꽃잎이 떨어진다. 앞서 말했듯 국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며, 민화에서 국화는 불로장수(不老長壽)의 상징으로 쓰인다. 하늘에 떠 꽃잎을 떨어뜨리는 국화는 불로장수와 맞물려 죽음에 대한 현화를 상징한다.

그림이 그려질 당시 만남을 시작 한지 얼마 안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사람으로 태어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맞이해야 하는 일임에도 죽음이라는 말 앞에서는 익숙해 질 수가 없다. 나는 죽음이라는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는 사건을 맞이한 그 사람을 선인장으로써 표현하고 마치 흰 국화 꽃잎이 비처럼 떨어져 갈대 숲을 적시는 장면이 떠올랐다.

갈대언덕을 산처럼 높게 그린 것은 끝없는 고난과 역경을 상징한다. 끝없음을 나타내고자 여러 개의 언덕들을 포개어진 형태로 표현하였고, 플랫자국을 남긴 종이 판을 찍을 때, 물을 들인 한지를 판 위에 올려 찍는

기법¹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서 색연필로 갈대를 하나하나 그려내어 바람결과 리듬감을 주었고 국화꽃과 선인장, 물 줄기는 모두 종이 판으로 찍어 평면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물감을 이용하여 떨어지는 꽃잎은 방향성을 갖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향해 떨어지게 그려 시선처리와 함께 평면적인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인생이란 끝없이 펼쳐진 외로움의 길이고, 죽음도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또는 멀리 접해야 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옆에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 속에 존재하는 갈대 숲에 탐스러운 흰 국화를 띄우듯 온 마음을 다해 그림을 그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었다. 죽음을 통한 인간의 외로움과 슬픔을 그리고자 하였다.

¹⁵⁾ 친꼴레(chincole): 종이나 캔버스 등의 화면에 어떤 색감, 질감을 가진 종이, 천 등의 얇은 오브제를 광범위하게 부착하는 기법이다.



【작품2】 봄바람 때문에 흩날리는 거야, 60x148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작품2】 봄바람 때문에 훑날리는 거야

요즘 같은 4월은 100년 만에 찾아온 겨울 같은 봄이라지. 봄은 나에게 이유 없이 행복함을 느끼게 해 주는 계절이다. 겨우내 얼어있던 흙 속에서 돌아나는 싹 들 하며, 학교 언덕길 중턱 즙에 파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새하얀 목련 꽃, 생선비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 벚꽃 잎은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한다. 따스한 바람이 볼을 스치고 내 몸에 걸쳐진 가벼운 옷차림도 맘에 든다. 조금 더 더워지기 전에 시작하면 아카시아 향이 바람을 타고 술술 창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 향에 취해 한참 코를 벌렁거린다. 이 느낌을 나는 너에게 아낌 없이 주고 싶다. 그렇게 그냥 꽃잎을 떨어뜨리면 바람결이 주워다가 너에게 보내주었으면 한다.

이 작품은 옆으로 긴 프레임에 두 소재가 수평으로 나열되어 그려져 있다. 벚꽃나무가 심어진 부츠와 벚꽃이 달린 선인장이 그것이다.

수평구도는 고요함, 휴식, 움직임이 없음을 암시하여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정적인 구도는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으며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입장에 처하게 한다. 누구를 비중 있게 다루거나 주목하지 않는 구도라는 뜻이다.¹⁶⁾ 이다. 이러한 평등성은 귀스타브 쿠르베(Jean Desire Gustave Courbet)의 <오르낭의 매장>에서 볼 수 있다. 본인은 봄의 서정인 느낌과 두 물체의 평등함을 상징하기 위해 수평구도를 사용하였다. [도판 3]

붉은 갈색과 빨강, 자주색을 겹쳐 칠하여 장지에 물을 들이고 밑바탕에 리듬감을 줄 갈대를 색연필로 그렸다. 그 위에 종이 판으로 부츠, 선인장을 찍었다. 벚꽃도 마찬가지로 종이 판을 여러 장을 가위로 잘라 찍어낸 결과물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구두처럼 길쭉한 물건은 전형적인 페니스의 상징이다. 볼록한 구두는 그 안에 공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움푹 패인 흙은 전형적인 바기나의 상징이다. 고흐 또한 구두, 장갑, 파이프와 같은 개인소지품을 즐겨 그렸다. 이 정물들은 일종의 소유법으로서 화가 자신을

¹⁶⁾ 조용훈, 「그림의 숲에서 동·서양을 읽다」, 효형출판, 2000, p.206.

암시 한다. 구두 역시 잘려나간 그의 왼쪽 귀처럼 화가 자신을 암시하는 일종의 초상화로 봐야 한다.¹⁷⁾

본인의 경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측면의 의미보다는 고희 쪽에 가깝다. 본인 자신을 암시하는 사물으로써 내 구두를 꽃나무가 화분 삼아 뿌리내리고 있다. 구두(부츠)인 내가 봄을 상징하는 벚꽃나무를 품고 있고 그 나무의 꽃들은 바람을 타고 선인장에게 날아든다.

민화에서 꽃과 나무는 인간의 생활상에 기쁨이나 즐거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소원을 꽃이나 나무들의 소재 속에 상징적 의미를 접목시켜 기원하였다고 한다. 민화처럼 그것은 내가 봄에 느끼는 행복한 감정을 꽃과 나무에 부여하였다. 그 기쁨, 즐거움, 부귀영화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타인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¹⁷⁾ 진중권, 「미학오디세이 3」, 휴머니스트, 2004, p182.



【작품3】 비 오는 고요한 그곳, 107x60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작품3】 비 오는 고요한 그 곳

빨간 자동차와 벌써 한 몸이 되어버린 친구 덕에 드라이브를 나온다. 두루뭉술, 물렁한 성격의 그 친구는 운전대만 잡으면 평소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덕분에 난 그저 조수석에 몸을 싣고 달린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10년 지기 친구와의 드라이브에는 그녀와 나, 그리고 나무들을 품고 있는 산 뿐, 우리는 말이 없다. 그냥 걷고 그냥 본다. 그 고요한 곳은 내 마음의 슬픔도 아픔도 모두 자신들에게 덜어주고 가라 한다.

자연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특히 마음 맞는 친구들과의 여행은 더없이 마음에 안식을 준다.

민화에서 산은 여성원리와 관련된 풍요와 공동체의 삶을 위한 어머니의 품을 상징한다. 산은 대지의 몸신의 관념과 결부되어 산모신의 상징성을 가진다. 이는 민간신앙의 노고, 즉 산할미의 원류로 간주된다. 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의미로 여겨져 풍요, 평안, 수호의 의미로 여겨졌다. 영험한 곳이자 일체 불변의 것으로 여겨져 장생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¹⁸⁾ 산은 풍요로움, 평안함 따뜻함의 존재로써 표현되고 있다. 의지하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물은 선인장의 위태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이다. 역설적이게도 물을 많이 주면 죽는 선인장에게 눈물의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비를 뿌림으로써 선인장의 무기력함, 시들어 감을 표현하며, 선인장 내의 수분 또 한 빠져나가 고인다. 작품내의 물은 본인을 비추는 유연한 거울로,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울가미로서의 존재로, 본래의 본인이기도 한 다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개체이다.

그 곳이 우울하지만은 않은 꿈꾸는 듯한 느낌을 위해 기분전환의 의미로 분홍색으로 장지에 물을 들이고, 【작품1】의 갈대언덕과 마찬가지로 물들인 한

¹⁸⁾ 송해석, 「민화의 동식물 특징 및 상징성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32.

지로 친필레 하였다. 친필레 한 산 위에 펜으로 나무를 빼곡히 그려 그 속에서 리듬감을 주고자 하였다. 물결의 표현은 PVC판에 칼로 긁어낸 자국을 찍어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효과를 내었다. 선인장은 종이 판, 선인장의 꽃은 선인장과 반대의 색을 사용해 화려하게 그려 내어 인간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물결 부분에 광택 제를 발라 물의 유연함과 반짝임의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4】 뜻하지 않은 경주, 73x103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작품4】 뜻하지 않은 경주

참으로 혼란스럽다. 방심도 게으름도 아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와 맞닿아 있는 것에서 감명받으려 노력했고 그것을 종이에 담아내려 하였다. 성인군자가 아니라 마음이 넓지 못하고 나와 너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상한다. 유독 나만 그런 것인지 기가 죽고 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소위 잘나가는 친구들은 의도치 않게 내가 선택한 길을 의심하게 만든다. “예술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작업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¹⁹⁾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에서 데이비드 베일즈와 테드 올랜드는 예술가에게 말한다. 불확실성과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괴롭혀도 ‘인내’ 하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이들이 책에 견뎌내라는 말도 쓰지 않았을 뿐 더러 모든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동료들과의 경쟁과 내 자신이 다치지 않게 질 수 있는 방법을 난 아직 모른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믿고 예술을 창조하기란 산들바람에도,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신념과 확신이 필요한 듯 하다.

부츠를 신은 선인장들의 행렬이 연꽃을 향한다. 연꽃은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도 꽃을 피우면서도 더러움에 흡수되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하며 고고한 꽃으로 불리 운다. 꽃은 우리 모두의 꿈, 최종의 목표를 상징하며 연꽃이 피어 있는 주변의 물 웅덩이는 속세, 말하자면 내가 소속된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 물 웅덩이를 겁 없이 뛰어드는 선인장들과 맨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

여백을 많이 두고 선인장들의 수평적 행렬에 집중한다. 물 웅덩이로의 시선이 집중을 위해 형광 빛이 도는 색을 선택하였다. 배경의 산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 펜과 색연필로 표현하였고 물 웅덩이의 물결은 고난과 역경을 나타내고자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PVC판에 칼로 둥글게 그어 찍었다. 선인장은 종이 판으로 찍고 연꽃과 부츠는 그려 넣었다.

¹⁹⁾ 데이비드 베일즈, 테드 올랜드 지음, 임경아 옮김,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루비박스, 2006, p. 18.



【작품5】 그리워, 잊어줘, 49x136cm, 장지 위 혼합재료, 2009

【작품5】 그리워, 잊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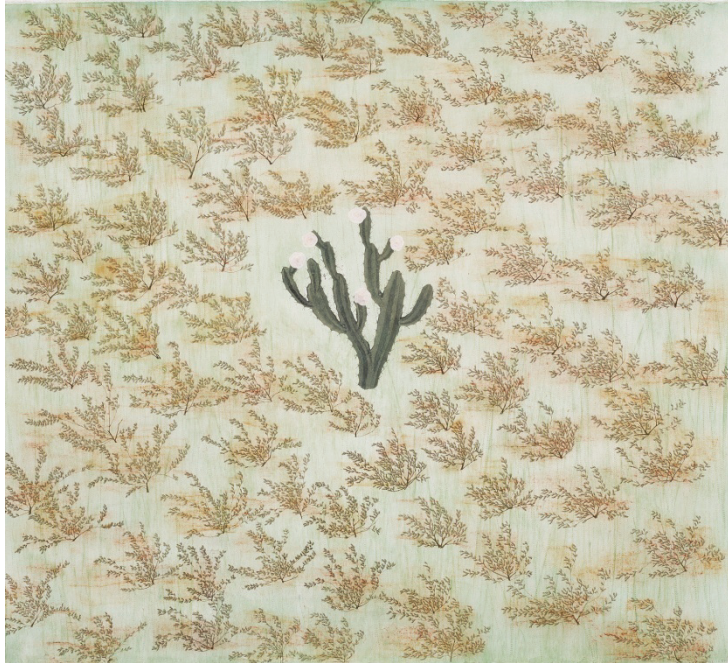
행복과 부(富)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저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한 길 사람 속일 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 10만원의 가치가 요즘 같지 않을 때, 겉모습은 종이 한 장이나 거스름 돈은 만원이 여러 장 생기기 때문이었을까, 그 수표를 너무나도 크게 생각했던 시절부터 친구였던 그녀는 내게 말했다. 친구들과 옷을 사러 가겠다는 나의 말에 엄마는 세상물정 모르는 고등학생 딸래미에게 10만원 수표 한 장을 손에 쥐어주었던 그 장면을 그녀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대학에 가서 받은 첫 장학금을 아빠는 자랑스러이 여겨 그 보다 비싼 카메라를 사주셨고 철마다 비싼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웬만한 녀두리를 “너도 그랬어-” 라는 말로 일축해버린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그때의 나와 같은 모습의 그녀들과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만 이제는 철모르는 어린애가 아닌 어른의 나이를 가진 나로써 다시금 생각한다. 그 때는 그 시절부터 친구였던 그녀들만 기억할 뿐, 나는 현재를 산다.

금색은 유럽의 그리스도에서 고귀한 ‘신(神)’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또한 세속의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다. 이집트 투탕카멘왕의 황금 가면에서 짐작할 수도 있듯이 왕들은 황금에 집착했는데, 이는 금의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²⁰⁾ 금빛물결은 화려함,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상징한다. 샹들리에 또한 샹들리에에는 화려함, 부유함을 상징한다.

선인장 이미지는 은은하게 배경의 역할을 해주길 바랬기 때문에 종이 판으로 찍지 않고 직접 선인장 전시장을 찾아 찍은 사진을 전사(轉寫)하였다. 샹들리에도 샹들리에의 이미지를 전사하고 펜으로 덧그려 마치 실크스크린의 느낌을 연출하였다. 그렇게 찍고 나서 아크릴 물감으로 물줄기를 칠하고 그 위에 금색 펜으로 물결을 그려 넣었다.

샹들리에가 물줄기를 쏟아낸다. 선인장들은 폭포수 같은 물줄기의 홍수에 잠겨버릴 지경이다. 과거에 얽매어 현재를 직시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덜컥 겁이 났다. 버릴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나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자 그린 그림이다.

²⁰⁾ 하마모토 다카시·이코 마사히로, 「색채의 마력」, 이동민 역, 아트북스, 2007, p.36.



【작품6】 뿔 보니-나, 73x82cm, 장지 위 혼합재료, 2010



【작품7】 뿔 보니-너, 73x82cm, 장지 위 혼합재료, 2010

【작품6】 뭍 보니-나, 【작품7】 뭍 보니-너

바다가 있는 가까운 여행지로 강화도가 제격이다. 옛 추억을 함께한 그녀들과 여름 휴가를 보낸 곳이자 경쟁사회에서 쓴 맛을 본 그와 함께 무작정 차를 몰고 간 곳이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그를 짓누를 때 난 딱히 해줄 말도, 해줄 것도 없었다. 초봄의 화도의 바다는 차고 스산했다. 적갈색의 마른 풀들이 하염없이 바람에 날리고 내 머리칼도 그의 속눈썹도 날렸다. 초봄인데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빛 바랜 색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빛 바랜 풍경 속에 우리들은 가슴에는 외로움을 품고 우리뿐인 풍경사진 밖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 두려움을 털어내려는 듯 실컷 바람을 맞았다. 바위와 자갈의 중간크기의 돌밭 사이에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져가 떠 안고 있는 듯 한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어찌나 홀로 그 거센 바닷바람을 곳곳이 견뎌내고 있는지 그 지독함을 잊을 수가 없다. 쓸쓸함과 외로움을 이겨냈을 그 나무는 더 따뜻한 진짜 봄이 오면 초록색 싱그러운 새싹을 피울 것이다. 그 지독스런 나무는 나에게도 숲에게도 바다에게도 봄이 있고 겨울이 있듯 너희에게도 언젠가 봄은 온다고 말해 주었다.

방향성을 띄고 있는 꽃잎, 갈대 등은 바람을 형상화 시킨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갈대는 본인의 내면적 감정 또한 외부적인 요인임을 암시한다.

【작품6】, 【작품7】은 화도에서 경험한 나무 한 그루가 가져다 준 심상을 바람이라는 요소에 부각시켰다. 타 작품들에도 바람을 꽃잎이 날리는 방향성으로 시각화하였고 특히 ‘갈대’는 바람의 의미가 더욱 더 크게 작용한다. 갈대의 의미는 바람에 좌우된다. 바람은 외부적, 환경적 요소로서, 갈대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마는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한다.

【작품6】, 【작품7】은 선인장의 색과 배경에 나열된 소재가 다른 연작이다. 배경의 색이나 기장 밑에 찍은 판은 같다. 그와 함께 있었던 한 공간은 두 공간으로 분개된다. 하지만 그와 내가 본 것과 마음이 달랐을 것이기에 내가 본 쓸쓸한 나무는 ‘나’의 입장을, 의도치 않게 닦친 상황에 흔들리는 갈대 밑에 선인장은 그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화면 중앙에 위치시킨 선인장은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바람의 느낌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적갈색의 나무에는 파스텔을 묻혀 한 방향으로 번짐을 주었다.

적갈색 나무들은 펜으로 그려낸 것으로 적갈색의 색감과 앙상한 나뭇가지에 빈약하게 돋아나 있는 마른 풀이 잘 조화되어 화도의 쓸쓸함과 적막한 느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다.



[작품8] 그득한 고독, 209.5x145cm, 장지 위 혼합재료, 2010

【작품8】 지독한 고독

【작품6】은 나무형태의 반복에서 오는 리듬감에 주목한다. 자연의 광활함을 표현하기 위해 장지 한 장을 바닥에 펼쳐놓고 배경색을 칠하였다. 평면적인 화면에 공기가 흐르 듯 생동감을 주고자 얼룩을 시도하였다. 크기가 큰 작품이라서 PVC판을 사용할 수가 없어 모조지에 오일파스텔로 칠을 하고 본인이 나만의 먹지를 만들었다. 그 먹지를 대고 롤렛을 굴려 판을 이용하여 찍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부츠 한 쌍이 서로 떨어져 하나는 물을 내뿜는 선인장의 모습으로, 나머지 하나는 물을 받아내는 구도이다. 세로로 된 화면은 관객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기를 의도하였다. 관객의 시선은 상부에 위치한 선인장에서부터 물줄기를 따라 하부의 부츠로 이동하게끔 하여 화폭 안에서 시선의 이동을 이끌어낸다. 나머지 공간에는 【작품6】과 같이 쓸쓸함과 스산한 느낌을 주고자 목탄과 연필을 사용하여 앙상한 나뭇가지와 풀의 형태를 나열하였다. 부츠와 선인장은 종이 판으로 찍어 평면적인 화폭에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물줄기는 오일파스텔의 묵직한 느낌을 이용하여 물질성을 강조하였다.

작품의 대한 주요 컨셉은 선인장은 본래 가시를 세우면서까지 체내에 수분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지만 작품 속 선인장은 오히려 수분을 배출하고 있다.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이 ‘나’를 위해 배려와 희생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그림이다.



【작품9】 풍풍 평평, 87x63cm, 장지 위 혼합재료와 액자 오브제, 2009

【작품9】 풍풍 평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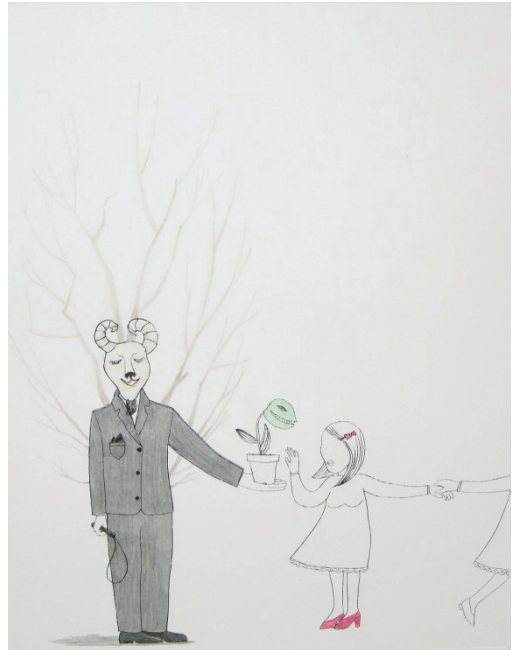
“이거 나에 대한 사랑 맞지……?”

꽃을 폼은 분수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줄기는 샹들리에처럼 화려함을 상징하고, 뿜어져 나오는 물은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상징한다.

장식적인 액자는 그 화려함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림에 틀을 끼워 넣지 않고 그림을 그림 틀에 끼워 놓는다고 말하는 김홍주의 작품 <무제>를 보면 그림의 틀은 구체적인 오브제 역할은 한다. [도판 4]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고 나를 통해 발견, 선택된 틀은 작품을 보호하고 작품과 그 주변의 산만함의 시각적인 분리로서의 용도가 아닌 작품의 연장선에 있게 하여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작품10】 가시도친, 50x35cm, 【작품11】 일초라도 고민했니, 50x35cm,
드라이포인트, 친플레, 2007. 드라이포인트, 색연필, 2007.



【작품12】 난 어린앤가봐, 50x35cm, 드라이포인트, 색연필, 2007.

【작품10】 가시도친

너의 부재에 대해 나는 놀랐고 지금은 슬프다…… 쿨 하게 “안녕-” 을 외쳤지만 내 마음은 이렇다……

선인장을 ‘자기방어’ 의 상징으로 사용한 그림이다. 마음을 두었던 사람의 부재에 대해 본인은 본인을 ‘선인장 같다’ 라고 생각한 바 있다. 본인의 모습이 가시를 세운 선인장으로 연상한 그대로를 PVC판에 니들로 그려 넣고 찍은 작품이다.

【작품11】 일초라도 고민했니

그는 참 예의 없는 사람이다. 타인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욕구만을 쫓는 그런 사람 말이다.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은 나에게 상처였고 긴 시간을 힘들어 하게 하였다. 마음이 더 단단해 진 나를 느낄 때쯤 그녀에게 다시금 끈적한 손길을 내밀었고 나는 더더욱 그 사람의 본성을 의심했다.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나의 말이 그녀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작품10】 과 동일하게 PVC판에 드라이포인트기법을 사용한 작품이다.

나쁜 그 사람은 식충식물 화분을 들고 있다. 식충식물은 다소곳한 모습으로 먹이 감을 기다린다. 그러나 먹이 감이 나타나면 가시처럼 솟아난 입을 쥘 벌려 단숨에 삼켜버리고 만다. 빨간 구두를 신은 그녀를 화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본인이 끌어당기는 모습이다.

내용의 전달에 있어 불필요한 요소는 삭제하고 간략한 선을 사용하여 가벼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들어간 색과 가벼운 선으로만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12】 난 어린애가 봐

“난 어린애가 봐”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었을까? 맞다. 믿었다. 나는 조금의 의심도 않고 그를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믿었던 순수함은 얼마 가지 못했다. 열기구가 바람을 잔뜩 집어 넣고 하늘로 떠올라 날아간 것처럼 내 마음속에 바람을 잔뜩 넣었다. 하지만 떠올라 날아간 것은 그다.

【작품10】 , 【작품11】 과 연작의 격으로 작업한 그림이다.

꿈 속에서 마치 그가 혀가 긴 형태로 나오는 악몽을 꾸 적이 있다. 꿈속에서 ‘새치 혀’ 라는 단어를 말했던 것을 보면 그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에 분한 감정이 들었나 보다.

본인의 몸은 그리지 않았다. 떨어진 구두를 통해 성별이 여자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목마 형상의 혀를 따라가 여자의 다리를 보게끔 시선을 이끄는 구도를 선택하였다.

Ⅲ. 결 론

본인은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관계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내적 갈등과 여러 감정들을 자연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인간의 여러 감정들을 자연의 요소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개인의 정서표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타인의 내면으로 빠져보기도 하고, 그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 본인 스스로를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들은 본인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일상만큼 중요치 않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큰 문제점들에 반응하기 보다 일상적인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변화나 친구들, 가족들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소소하게 그려나간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며 자연에서 출발한 모든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는 본인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한다. 온화함과 평화로움을 가진 자연물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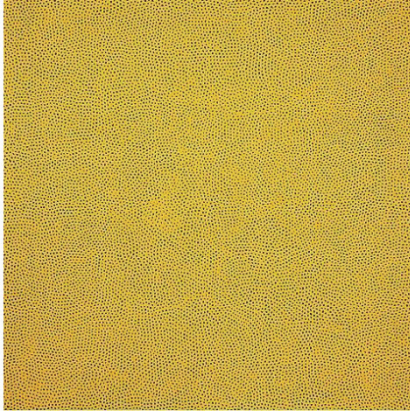
작품 속의 모든 상징성을 띤 자연물들은 사실적 묘사보다 의미에 치중한 평면적 형태로 나타난다. 단순화된 선의 강조와 원근감을 배제시킨 이미지들은 이야기 전개에 있어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장식성과 리듬감을 주는 단순화된 선의 나열은 마치 비단결의 형태를 연상케 하면서 화면 밖으로 확장되어 나뉘지 공간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선을 굵고 색을 조합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으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 자연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시금 재조명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각 소재들의 표현방법에 있어 기법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보다 확장된 시야로 바라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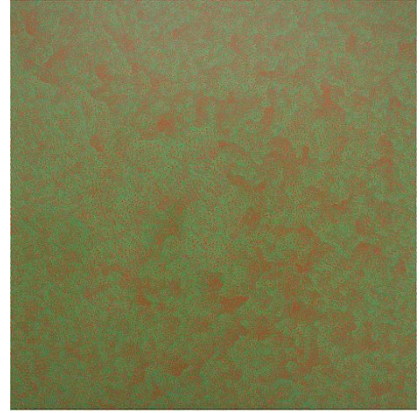
수 있어야 함을 느꼈다.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본인은 본고를 통하여 온전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욱 구체적인 기법과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다음 작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독자적인 이야기를 작품으로 옮겨내는 방법과 의미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참 고 도 판



[도판 1] 야오이 쿠사마, INFINITY-NETS(TBBBTY)



[도판 2] 야오이 쿠사마, INFINITY-NETS(ABCETO)



[도판 3] 귀스타브 쿠르베, 오르낭의 매장



[도판 4] 김홍주, 무제

참 고 문 헌

- 국립언어연구원, 「표준국어 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0.
- 김수연, 「풍경의 서정성 추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학, 「민화」, 서울: 대원사, 1994.
- 김은화, 「민화의 상징성과 조형성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데이비드 베일즈, 테드 올랜드,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임경아 역, 서울: 루비박스, 2006.
- 미학대계 간행회,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박정경, 「한국화에 나타난 여백의 효과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서치방 편집부, 「판화미술의 세계」, 서울: 서치방, 1994.
- 신원섭, 「치유의 숲」, 서울: 지성사, 2005.
- 송해석, 「민화의 동식물 특징 및 상징성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윤열수, 「민화이야기」,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8.
- 에바헬러, 「색의 유혹」, 문은배 감수, 이영희 역, 서울: 예담, 2002.
- 왕백민, 「동양화 구도론」, 강관식 역, 서울: 미진사, 1991.
- 정진선, 문미란 지음, 「인간관계의 심리-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 진중권, 「미학오디세이3」, 서울: 휴머니스트, 2004.
- 조용훈, 「그림의 숲에서 동·서양을 읽다」, 경기: 효형출판, 2000.
- 칸딘스키,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차봉희 역, 서울: 열화당, 1997.
- 하마모토 다카시·이코 마사히로, 「색채의 매력」, 이동민 역, 경기: 아트북스, 2007.
- R.G.Coolingwood, 「Outline of Philosophy of Art」, 이인철 역, 서울: 정음사, 1974.

ABSTRACT

**Emotional expression research from the Symbol for nature
of the image**

-Centering Around My Work-

Park, Ji-Hye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 analyzed meaning being on the sensibility coming from nature and the way of expression on the following thesis, when I express the sensibility.

Nature has affected emotion of human as a base of life, and the effect of it has given birth to world of art. Humans are just part of nature so they have to be in harmony with it. Humans have seen the nature, realizing their own exist, they have been moved by vitality of life, and then they have got inspired for the art. Like this, the sensibility from the nature becomes background for the fundamental feeling of art.

The modern culture changing fast give humans a rule as a social animal, making a group formed. Humans have concentrated on adaptation for the society rather than relating with nature. I give

the meaning to emotion coming from the relation with society. People feel not only happiness, joy, love, but also betrayal, fury, sorrow coming from conflict in the society. Materials of nature possess these emotions, and the materials drawn on the paint tell the story being inside me with symbol of each material.

Because I have got inspired and cured by the nature, I do drypoint on the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on which I draw with my pen or pencil without chemical and artificial way. And then after plucking or cutting a groove, I press paperboard. Like this, I give it feeling of being piled up one on another, like clothing worn in layers. As I want to express moving moment using line, I repeat this to achieve a goal of satisfaction. Expression repeated on the blank space give rhythmic feeling. I want to give emotion being able to feel in the nature, using pastel color.

I made a study on this thesis, looking into contents and processing of arts made from 2007 to 2010. My drawings are the cure of nature to overcome the emotion coming from modern human society. Looking through problem and achievement of arts to draw picture the emotion above-mentioned, I will establish the foundation of my drawing.